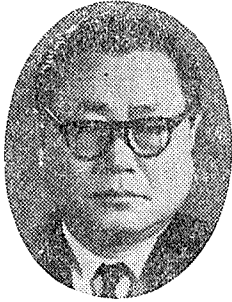


● 新年辭



鮮명한 圖書館人의 座標設定을

會 長 李 瑄 根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 圖書館發展의 役軍으로서 맡은 바 課業遂行에 先導의任務를 다 해온 圖書館界 同志 여러 분께 甚深한 感謝를 드리며 여러분 家庭에 幸運이 깃드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眞心으로 祝願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은 國民이 維新理念으로 뭉쳐 祖國近代化를 위해 總力を 競走한 새 歷史創造의 해였으며 이와 같은 辟창 흐름속에서 圖書館界도 또한 새 歷程을 겪은 해 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團結된 總로 叡智를 모으고, 우리들 自身의 權益을 擁護하고, 우리가 몸담아 보람을 찾는 圖書館發展을 圖謀하고자 하여 우리의 손으로 設立한 圖書館協會의 體制가 改編되었습니다. 理事陳이 새로 構成되었으며 새 專門委員會가 만들어 졌고 새 紀風으로 刷新을 促進하였습니다. 本人도 여러 분의 뜻을 받들어 協會長으로서 圖書館界에서 함께 일을 하는 圖書館人의 一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協會長職을 受任받고 이렇다할 일을 하지도 못한채 汗해를 보내게된 아쉬움과 悚懼스러움이 남아있습니다.

圖書館事業의 重要性을 늘 強調해 오던 사람중의 한사람 이었으나 직접 圖書館人의 一員으로서 일을 맡고 보니 어려운 逆境을 克服하고 숨은 일꾼으로서 圖書館一線에서 獻身努力하시는 여러 분의 勞苦를 알게되었으며 또한 圖書館事業의 重要性和 그 發展의 切實함을 재삼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社會는 圖書館의 必要性을 認定하면서도 後援에 吝嗇합니다. 善意의 환영은 받으나 實質의 待遇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環境속에서 圖書館事業에 投身하고 있는 우리들의 苦難은 더 해가 기만 합니다. 그러나 苦難을 괴롭게 反芻하다보면 挫折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苦難을 마음껏 맞이하고 다시 希望을 蘇生시키는 逆作用이 必要합니다. 過去와 現在, 未來를 연결하는 進取的架橋에는 昇華된 圖書館人의 自畫像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제의 經驗을 거울삼아 오늘의 體驗을 바탕으로한 來日의 設計는 값진 것입니다. 希望과 期待를 갖게하는 새해를 맞아 鮮명한 座標는 設定되어야하고 굳건한 意志로 다져갈 수 있는 構想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해마다 새 다짐을 하는 것이겠지만 이번 새해만은 우리가 직접 몸담고 生活를 領有하며 보람을 찾는 圖書館事業에 대해 좀더 깊이 反省하고 앞으로 새 里程標를 세우는데 많은 時間을 갖어 봅시다. 아울러 한가지 간곡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數年間 國家로부터 協會가 받아오던 事業補助금이 政府의 方針에 따라서 全額 削減되어 協會의 財政형편이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를 打開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여러 분들의 全幅의인 後援과 協助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모쪼록 事務局을 積極 도와 어려움을 함께의 힘으로 解決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는 바입니다.

스스로 擇한 오늘의 荊棘의 길은 辟창 來日을 기약하는 榮光스러운 歷程이 아니겠습니까. 送舊迎新의 새 아침에 여러 분은 當面課題와 難關을 解決해 나가기 위하여 衆意를 모으고 불타는 使命感으로 進路를 開拓하여 오늘에 充實하고 來日을 꽃피우도록 합시다.

새해에는 많은 福을 받으시고 所願을 이루시길 衷心으로 祈願합니다.